현대미술 공유하는 즐거운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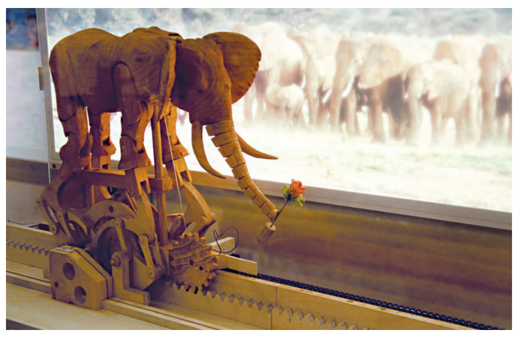
예울마루 기획전 '마법미술관'
이이남·심미영 등 11명 참여
오는 5월 28일까지 7층 전시실

이이남 '책 읽는 소녀'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미적 체험을 공유하는 즐거운 놀이터가 마련됐다.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 기획전시 '마법미술관:어린이를 위한 60일의 원더랜드'가 지난 21일 개막, 오는 5월 28일까지 예울마루 7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은 난해하다'는 편견을 없애고 관람객들이 재미있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 상상과 판타지를 모티브로 다양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조형물들을 가득 채웠다. 회화·조각·설치·미디어아트 등 총 62점이다. 박형진(회화)부터 손은영(사진), 심미영(설치), 이승항(설치), 이이남(미디어아트), 임춘희(회화), 정보영(회화), 정정주(설치), 조민숙(조각), 주도양(사진), 홍성철(설치)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주목할만한 작품은 심미영 작가의 '기묘한 날아오름'이다. 종이를 접어 만든 나비를 허공에 가득 매달아 놓은 이 작품은 관람객들의 환시를 자극한다. 흔들리는 종이 나비들이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연출에 의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비현실적인 공간에 머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심미영 '기묘한 날아오름'


이승항 '아프리카 코끼리'

이승항 작가의 오토마타(Automata) 작품인 '아프리카 코끼리'(코끼리가 나에게 꽃을 준다면…) 역시 눈길을 끈다. 오토마타는 '스스로 동작하다'라는 뜻의 고대 라틴어로 인간의 지속적인 조정이 없어도 작동하는 자동기계를 말한다. 움직이는 예술작품으로 기초과학의 기본원리와 조각 예술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융합예술장르다. 기계적 원리를 이용해 움직이는 조각예술품인 이 작품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상기시키며 생명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2전시실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신작인 '책 읽는 소녀'는 실제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던 소녀동상을 가져와 제작한 작품이다. 소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전한다. 조각 뒤로 보이는 영상 속 쓰고 지우는 드로잉의 흔적을 통해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기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 이 작품의 묘미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3,000원이다.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테이블 워크숍'과 '사막 그리기'는 과학원리와 심미적 감상을 함께 이해하는 활동과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시관람료를 포함해 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GS칼텍스 예울마루 홈페이지(www.yeulmaru.org) 또는 전화문의(1544-76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왼쪽부터 금동관음보살좌상, 선각국사 도선 진영, 선암사 중창 건도기.

선암사 불교문화재 특별전 '세계유산 선암사'

10월 27일까지 순천대 박물관

조계산 선암사 소장 불교문화재 특별전 '세계유산 선암사'가 23일부터 10월27일까지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선암사가 창건된 이래 선암사 소장 유물이 외부로 반출돼 공개되는 '첫 번째 속세 나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각국사 도선 진영', '대각국사 의천 진영', '33조사도', '선암사 동종',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보물 5점과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은입사향로', '선암사중수비(탁본)' 등 전남 유형문화재 3점을 포함해 총 127점의 선암사 소장 유물이 공개된다.

그동안 선암사의 유물은 한국불교 태고종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분규로 경내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태고종과 조계종 양측이 선암사 문화재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순천대박물관이 특별전을 기획했다.

강성호 순천대 박물관장은 "세계유산 선암사는 간화선의 수행 정신과 경전의 강학 전통 및 염불 수행의 승풍을 고고하게 지켜온 청정도량이자 천년고찰로서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전이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의 역사와 소장 문화재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순천의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 공간은 순천대 박물관 2층 강운전시실에 마련됐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최진화 기자

남도국립국악원, 내일 '악단광칠' 콘서트

전 세계적인 인기로 국가와 장르를 불문하고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악단광칠'이 국립남도국악원을 찾는다. 악단광칠은 사단법인 정가악회 유닛그룹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단체다.

악단광칠

25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열리는 악단광칠 콘서트는 서해안 배연신굿의 뱃노래를 재해석한 '어차', 황해도 무속의례 만수대탁굿에서 영감을 얻은 '리크나우그나드카', 북청사자놀음의 장단과 퉁소 가락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북청' 등 악단광칠만의 색을 보여줄 다양한 곡들을 약 60분간 선보인다.

악단광칠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절묘하게 엮어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밴드의 강렬하고 유쾌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국악원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한편, 진악당(공연장) 로비에서는 최첨단 IT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재미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와 국악기 음원 감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홈페이지(https://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 장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행사와 예술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을 모집한다.

23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엄마랑 아이랑 문화기자단'을 개편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부터 엄마와 아이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와 아이, 조부모와 아이, 삼촌, 이모, 고모 등 가족구성원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선발된 가족기자단 5팀은 발대식과 기사 작성 기초 역량교육을 거친 후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으로 본격 활동하게 된다. 광주문화예술 곳곳 현장소식을 취재, 재단 블로그에 게재하고 다양한 SNS 홍보 콘텐츠로 편집, 활용된다.

기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위촉장 및 기자증 발급, 재단 주최 행사 우선 초대를 비롯해 역량강화 워크숍, 사진 촬영, 기사작성 편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 2일까지 이메일(syan01@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